

第 35 回 全 國 民 俗 藝 術 競 演 大 會 出 演 作 品

바위절마을을 好 喪 놀이



일시 : 1994. 10. 19 ~ 10. 21 • 장소 : 춘천시 춘천종합경기장

서울특별시

바위절마을 好喪놀이

바위절마을(岩寺洞)은 광나루(下律站)에서 東方向에 위치한 바위에 9개의 절(寺)이 있어 九岩寺라 한데서 유래 되었다. 지금은 암사동 산1번지에 “바위절터”라고 쓰여진 標石이 세워져 있고 주춧돌만이 절터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암사동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夫婦喪輿인 雙喪輿好喪놀이를 비롯하여 “지경단이” 등의 각종 민속놀이가 전래되어 왔었다. 그 중에서도 이 雙喪輿好喪놀이는 가정형편이 넉넉하며, 오래살고 복이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만 노는 놀이로써 出喪時 험난한 山行길을 무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洞里 집안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는 절차로 전날밤 빈 喪輿를 메고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輓歌를 부르며 발을 맞추는 조작놀이(대떨이)가 있다.

出喪日에는 山行길을 떠나 많은 험난한 곳을 지나 山役場에 도착하면 下棺하고 成墳하는데 이때 선소리에 맞추어 시작되는 달구질은 등·배 맞추기 광중 달구질에 이어 成墳다지기 달구질로 이어진다.

바위절마을 好喪놀이에 사용되는 雙喪輿는 36명이 메는 喪輿와 28명이 메는 喪輿로서 10명내외가 메는 보통상여보다 매우 크다.

이곳 바위절마을에서 傳來되는 雙喪輿好喪놀이는 암사동 103번지의 문창순(당시 69세)翁이 1951년 死亡時 놀았던 것을 끝으로 斷切되었으나 故 문창순翁의 曾孫 文慶洙와 이 고장에서 대대손손 뿌리내려 살고 있는 李鍾天(당65세), 李載慶(당65세)외 12명의 證言과 考證에 의하여 40년만인 1990년에 다시 “雙喪輿好喪놀이”가 原形대로 複元되어 오늘에 傳承되고 있다.

조작놀이(대떨이)

조작놀이는 일명 대떨이 라고도 한다. 출상전날 밤에 빈상여를 메고 노는 놀이로써 出喪時 험난한 山行길을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輓歌를 부르며 발을 맞춘다. 이때 내일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나야 하므로 오늘밤 洞裏에 사는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주고 받는 놀이가 시작된다.

이 놀이는 빈상여에 亡者의 사위를 태우고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는데 상여가 대문앞에 도착하면 온 가족이 나와 세번 절하고 가시는길 편히 가시도록 노자돈을 두둑히 걸어 준다. 그리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놀이를 조작놀이라고 한다.



出 喪



出喪日に 亡人を 上野に
運ぶ時 喪主, 복재기들이
上野앞에 모여 發鞠祭를 지낸다.

발인제가 끝나고 상여꾼들이
상여옆으로 도열하면 선소리꾼이
상여앞에서 “동갑네”를 세번부른다.
상여꾼들은 그제서야 대답하고
상여를 메고 일어 선다.

선소리꾼이 輓歌를 구슬프게
부르면 상여꾼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상여는 당을 돌며
喪主의 마지막 절을 받고
山行길로 떠난다.

山行길

(대림이)

출

<行列>

運樞行列은 이 바위절마을
특유의 풍습인 農樂隊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만장, 방상씨, 혼백,
요여, 명정, 공포, 불삼, 운삼,
부부상여, 상주, 복재기,
조객순으로 열을지어 간다.

<징검다리>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길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개천에 돌을
떠엄 떠엄 놓은 징검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상여를 메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 뛰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이때 상여가
약간 요동하지만 선소리에
상여꾼들의 발을 맞추면 무난히
건너게 된다.





〈외나무다리 건너기〉

농촌의 개천에는 징검다리뿐만 아니라 흔히 물속에 동발을 박고 통나무 서너개를 한데 묶어 발판을 만들거나 발판위에 떼장을 얹어놓은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다. 상여꾼들은 이 외나무 다리를 선소리에 맞추어 건너는데 左·右 상여꾼들의 발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V字가 되어 중심을 유지하면서 건너간다.

달구질

상여가 산역장에 도착하면
下棺하고 成墳을 하는데 이승에서
마치 집터를 다지듯 고인이
천년만년 지낼 유택을 짓기
위하여 달구질을 한다. 이때
선소리는 갖은 덕담과
방아타령등을 하며 빙빙돌아가며
달구질을 한다.

〈달구질소리〉

“달고 닳는 동간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세상천지 만물중에
인간밖에 또 있는가,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한두사람이 다질지라도 열스물이
다지듯이 일심으로 다져보세.
먼데사람 듣기 좋게 가까운 사람
보기 좋게 한발두뼘 달고대를
두세발이 되는 듯이 좌우로
제치면서 일심으로 다져보세.
작은 머리를 흔들어가며
삼등허리를 꾸부리면서 일심으로
다져보세.”



考證·構成·演出指導

○ 고 증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

○ 작품구성

- 홍성학(풍물보존회장)

○ 연출지도

- 정인삼(한국국악협회 이사)

出演人員(135명)

- ① 농 악 - 7
- ② 만 장 - 20
- ③ 방상씨 - 2
- ④ 혼 백 - 1
- ⑤ 요 여 - 2
- ⑥ 명 정 - 2
- ⑦ 공 포 - 2
- ⑧ 불 삼 - 2

- ⑨ 운 삼 - 2
- ⑩ 선소리 - 2
- ⑪ 상 여(1) - 36
- ⑫ 상 여(2) - 28
- ⑬ 상 주 - 3
- ⑭ 복재기 - 8
- ⑮ 안상주 - 3
- ⑯ 조 객 - 15